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na nmaum

법공양 페이지

것이기에 지혜와 신통력이 들이 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지, 지혜와 신통력이 어떻게 들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중심의 도리입니다.

마음공부 믿음이 척도 인지요

문 그동안 한마음 주인공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여쭙려고 합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 저의 인생이 조금 많이 변화하는 것 같고 또 제 오장을 부를 침소해서 믿음으로 연결이 된 기분 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생활해오면서 시험하면서 보니까 확실하 주인공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하는데 주인공을 찾는다고 해서 밀친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믿고 믿고 해서 뭐 세고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주인공에 대해서 99%는 부정하고 1%만 믿어왔습니다. 며칠 전이죠. 제가 이곳에 들어 올 때는 합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는 법당에서 천수경을 독경하는데 마음이 한결같은 때는 스님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는 게 참선

15면에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동자의 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음은 무엇이냐?" 하고 또 부처님께서 물으시자, 동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고 부처님이 제게로 오시면 저와 하나가 되니 어찌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까?" 했답니다.

입니다. 내가 그걸 발견한 것은 우리 집에 식구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중도에 나올 말았는데 안났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당신 알아서 해" 하고 내밀고 보니까, 한 보름 전에 딱 부딪치네요. 사실은 내가 지금 그쯤 알아가지고 뭐 행동한다거나 말을 하는 것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습성·버릇 때문일텐데 스님께서 좀 교정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심천마일짜리 모터를 들리는 모양인데요. 이제 삼만볼트 전기를 안 양에서 스님한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허락하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들었다 놓을 수 없다면 사람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들기만 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병신 이요, 놓고 들 줄을 모른다면 병신이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주먹을 쥐었다 뭉칠 줄 모른다면 병신이요, 또 퍼 놓고선 쥘 줄 모른다면 병신이겠지요. 그러니까 폼다가 쥐었다가 폼다가 쥐었다가 하는 양면의 작용을 자기 스스로 잘 하는 것을 일축해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잘 파악하셔야죠.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선근을 삼어 주는 일입니다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써, '한마음 속에서 들이고 내는 모든 방법이 그대로 더불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들이 아니게 말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자기 속으로 확철하 알려면, 거기다 또 놓고 돌아가야 하니깐 두번째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번죽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가 인연에 따라 손수건을 쥐었다면 들고만 있는 게 손수건이 아니라 땀을 닦아야 하겠지요. 어느 곳을 닦든지 말입니다. 그러면 나와 수건이 인연이 마주쳤기 때문에 닦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젠 발전의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중용의 도 가르쳐 주십시오
문 오늘도 이렇게 큰스님을 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죽는 쪽, 사는 쪽 양 면을 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느 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주인공한테 관하는 데, 그 양면을 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관하는 것은 그 중용의 도를 벗어난 것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인

물러서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며 한마음에 놓을 때 '자기' 없어져

는구나. 그대로 그냥 그냥 익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잘 들으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착하게 그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경전으로 알려고 하지만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양 발이 갈을 수가 있고, 너한테로 가면 너로 하나가 되고 나한테로 오면 나로 하나가 되니 들이 아닌 고로 그 하나는 담 너머로 박 덩굴이 넘어가서 박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 그 박도 익었어야겠지요. 그래야 제 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음 밖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수없는 억결 동안 진화되어 나오면서,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손수건 하나를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엇이 필요로 하였습니까? 손수건이란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주니까 바로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룩 일어나는 대로 나온 그 자리에 맡겨 놓으세요. 그런데 무척 묘한 게 많입니다. **문** 제가 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아침에 숙이 쓰리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마시고도 괜찮다고 생각해서인지 다음날 아침에도 밥 한 그릇 다 먹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답** 그렇게 되는 것은, 습도 거기서 나오는 거나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다스리는 것은 너무 많이 먹으면 불편하게 될까봐 조금 덜 먹는다 하는 마음으로 가면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지 마라'도 아니고 '해라'도 아니고 자기에게 맞게, 용도에 따라, 아주 알맞게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문**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그런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남았는데 저 나름대로 할려고 그러합니다.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 그런 습성도 놓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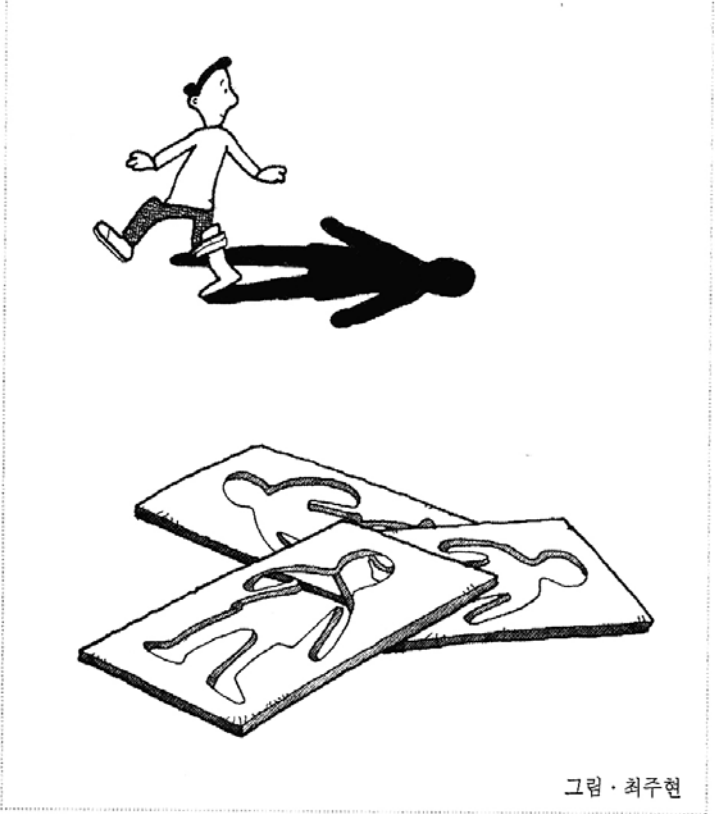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과 하나 부처님이 내게 오면 나와 하나 돼요"

것으로 세 번 죽기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큰스님께서 해오신 바와 같이 목숨을 때려놓고 들어가야 합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문** 주인공을 일심으로 발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지든 거지가 아닌, 남자는 여자든, 속이든 승이든 누구냐를 막론해 놓고 말입니다. **답** 내가 동자 얘기를 한 바와 같이, 사람은 절름발이가 돼서는 안됩니다. 즉 무심과 유심이 절름발이가 돼서는 안됩니다. 동시에 같이 돌아가는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 내는 것과 육신의 움직임이 동시에 돌아가지 어디 따로따로 돌아가니까? 눈과 귀가 따로따로 돌아가니까? **문** 그러니까 동시에 약과 선도 거기 보라, 약한 것은 선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믿고 놓고, 선하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모든 것을 한군데에 놓는 것이, 자기가 공해서 본래 없는 것이기에 따로 없다 이 소립니다.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내가 없는데 따로 있는 것도 없다면 이것은 잘못되어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홀로 돌볼장군 없다 이겁니다.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거기다 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내가 따로 없는 반면에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니까. 안그렇습니까? 공생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그냥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땀이 나면 손수건을 들어서 닦고, 일체 만물이 다 내 아님이 없이 나뉘면서 돌아가는 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 그것을 알려면 또 놓고 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번도 죽어야 하고, 두번도 죽어야 하고, 세번도 죽어야 구경의 경지에 이르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전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도 모를 것이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공했다는 사실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번도 죽어야 하고, 두번도 죽어야 하고, 세번도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동자가 얘기 중에, '차이가 없습니까?' 했고, 부처님 발과 그 어린 동자의 발이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몸이 자주 아픉니다** **문** 제가 몸이 이렇게 자주 아픉니다. 피가 순환이 잘 안되고요, 겨울 삼동 아파서 고생하다가, 두번째 왔는데 좀 덜하긴 하지만 어떻게 몸이 나을는지요. 허리는 영 꾸부정하던 게 조금 펴졌습니다. **답** 그것도 그 몸 속에 한마음으로 작용하는 모든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니 믿고 맡기세요. 업식의 작용이니, 보살님 주인공에 한마음으로 믿고 놓으십시오. 맡기세요. '네 몸이 이렇게 아프게 한거니까 네 몸이 아프게 하지 말고 끌고 다녀라' 하고 맡겨 버리세요. 그렇게

유심과 무심이 동시에 돌아가는 걸 알아야해요

데, 그것도 중용의 도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문**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왔으니깐 모든 일체 만물을 당신으로 하여금 들이고 내죠? 그래서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씩 그 중심 당신 뿌리에서 맡기세요. 뿌리가 있어야만 모든 가지와 이파리 또는 그 재목이 스스로 꽃이 피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죠. 뿌리 없는 나무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문** 그 뿌리로서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뿌리에 놓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모든 것은 뿌리에서 나오므로 씩이 있지, 뿌리가 없는데 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그 자체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겁니다. 몸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 중심 주인공에 맡겨 놓고 그대로 자기 생각 돌아가는대로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문**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집착을 하더라도 집착이 아니요, 망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망상이 아니며 모든 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아니까 그 속에 다 되놓고 활발하게 인연에 따라서 활용해야 이겁니다. **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십대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 목련존자와 지혜제일 사리불존자가 계시는데, 하루는 그 두 존자께서 신통력 내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신통력 부분에 있어서는 목련존자가 위기 때문에 목련존자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사리불존자가 이겼다고 합니다. **문** 그래서 나중에 목련존자가 사리불존자에게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가 하고 그 비결을 물으니 사리불존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긴 것이 아니고 부처님에게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내기를 하는 순간에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제가 이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 그 때 사리불존자께서 부처님께 하신 그 기도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복신앙으로 이해를 할 때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답**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리불존자가 기도를 한 것 같지만 그게 다른 겁니다. 그 기도를 할 때의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로부터 주인공이라 하고, 이로부터 죽음이 아니라 하는 데, 이것은 자기 마음이 지혜롭게, 말하자면 이 사람한테 똑바로 있는 대로 대답을 하려니 그 쪽이 왜 될테고, 똑바로 대답을 안하잖아 거짓말이 될테고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가 안가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죽심으로써 중용을 했기때문에 그건 기도라고 거기가 붙일 바가 없습니다. 죽심입니다. 그러나 목련존자는 한번 했으면 끝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진 겁니다. 자유스럽게 끼고 빼고 끼고 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의 목소리와 스님들의 독경소리와 제 소리가 삼위일체가 돼서 한번도 틀리지 않는 데, 들어올 때 합장을 하고 99%를 믿지 않고 부정을 하면서 들어왔던 천수경을 독경하는데 자꾸 틀리는 겁니다. **문**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노력을 해도 틀리고 해서 나중에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아이, 이왕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으니 끝까지 실패를 해보자' 하니까 계속 틀리는 겁니다. **문** 그리고 주지스님 방에 올라가서 또 했는데, 주지스님이 '왜, 지금 문을 닫고 왔습니까?' 그러셔요. 아아 굉장히 땀을 흘린 모양이네요. 그래서 나와보니 땀을 두지 않게 흘렸나봐요. 안되는 거죠. 모든 게 갑자기 잘 안되는 거예요. **문** 부인을 했더니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그것도 아니구나. 그래 다시 주인공을 찾아 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 주인공 도리가 그렇게 묘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자기가 편리하게 자기 찾는데, 공부하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고 때와 장소 배경도 없으니 항상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99% 부정하고 1%를 믿었는데, 잘 안되는 것이 자기 믿음의 척도에 있는지요? 알고자 합니다. **문** 그것은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입니다. 척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관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관·세·음입니다. 관해 보고 관해 듣고, 말하고 이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관세음 그 자체입니다. **문** 그런데 이름만 바깥으로 찾으니 그게 어디 찾아 집니까? **답** 그러니까 한번 직접 실패하고 나가시는 게 진짜 참선입니다. 아주 잘 하십니다. 이 공부하는 데는 말만 여러 시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일심으로 내면세계를 근중하게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도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며, 내 이름을 믿지 말라.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이 발견되면 마음도 참부대서 들이 아니니라. 너희가 이 도리를 깨달으면 나와 더불어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문**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스님은 부처님경전 말씀을 안하시냐 저렇게 늘 하신 말씀 또 하시나, 이리저 마시고 더욱 노력하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팔만 사천의 법입니다. 번뇌가 아니라 법입니다. **문** "내가 얼마나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까, 업보가 얼마나 많고 죄를 얼마나 지었을까 이런 안한 것이 되 칠까" 하고 바깥으로 이리다저리 점점 더 합니다. 불나는 데 기를 갖다 퍼붓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담요로 덮으면 잔잔하게 깨지듯이, 어떠한 경계가 닦이고 어떠한 번뇌가 일어나도 해도 나온 그 자리, 즉 자기의 참 주인공을 믿고 티끌 한점 남기지 말고 물결 맡겨 놓으셔야 합니다.

법공양 주인공